

ZOOM  
-IN글로벌 IB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 
양상과 시사점

- 글로벌 주요 IB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의 수익 비중을 높이거나 투자전략을 다양화함
- 국내 금융투자회사 역시 2000년대 이후 경제·문화적 인접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 위주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함
-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시적으로 해외 진출이 위축되었으나 자기자본 증가 및 리스크 관리 등 해외 현지법인의 내실을 강화하고 있음
- 그러나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과 비교했을 때, 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 중 해외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.3%로 매우 낮음
- 국내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수익모형을 발판으로 삼아 국외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역량을 확보해야 함

## □ 글로벌 주요 IB의 해외 투자전략과 현황

— 글로벌 주요 IB의 해외 투자전략<sup>1)</sup>

- 투자은행·트레이딩 중심 사업모델: Goldman Sachs
- 자산관리·운용 중심 사업모델: Morgan Stanley, UBS, Credit Suisse
-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간의 균형과 시너지를 추구하는 다각화 사업모델: JP Morgan
- 글로벌 I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커룰(Volcker Rule)의 영향으로 FICC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WM, 기업금융, M&A, IPO 등의 수익 비중을 증가시키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함<sup>2)</sup>
- 2000년대 초반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의 비중을 높이는 등 글로벌 수익 비중을 높이거나 지역을 다양화하며 꾸준히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함
-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핀테크, ESG 연계 금융서비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M&A 활용하며 수익모형을 변화시키고 있음<sup>3)</sup>

## — 글로벌 주요 IB의 지역별 해외수익 비중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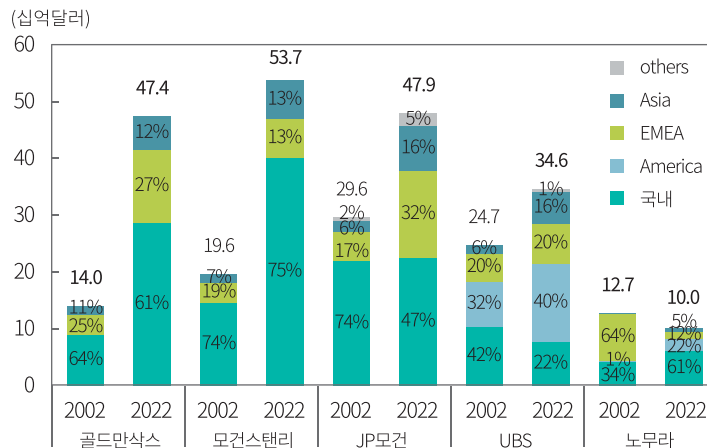
1) 최순영, 2021, 『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은행의 변모』,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21-04

2) 이효섭, 2019, 『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과제』,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-12

3) 이효섭, 2023, 『증권사 10년 평가 및 한국형 IB의 발전전략』,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-14

-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경우 국내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수익 비중이 증가함
- JP모건의 경우 국내 비중이 27%p 감소하고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함
- UBS의 경우 국내 비중이 20%p 감소하고 북미 비중을 비롯한 해외 순수익 비중이 증가함
- 노무라의 경우 국내 비중이 증가했으나 해외수익 대부분을 유럽이 차지했던 과거와 달리 아시아, 아메리카 등 유럽 외 지역의 수익 비중이 증가함

**<그림 1> 글로벌 주요 IB의 지역별 해외수익 비중 변화**



주 : 1) 국내는 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곳을 의미함  
 2) 2002년 UBS 자료는 총영업이익(total operating income)의 값  
 자료: 각 사 10k, 20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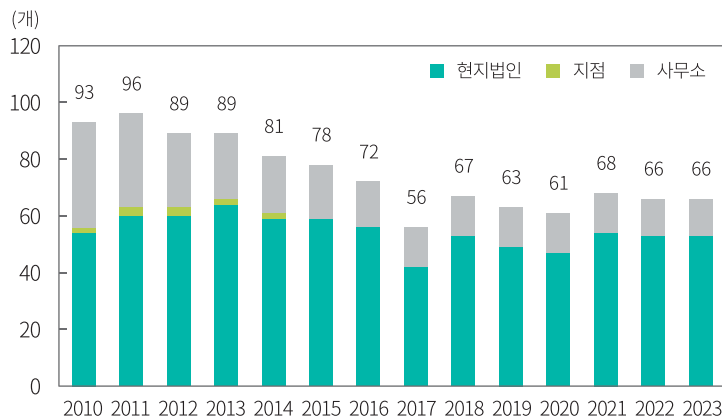
□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 연혁<sup>4)</sup>

- 1980년대: 사무소 형태로 제한된 형태의 해외 진출
  - (1984년) 3개 증권사<sup>5)</sup>가 일본과 미국에 처음 사무소<sup>6)</sup>를 설치하며 해외 진출
- 1990년대: 해외 영업지점 설치 규제 완화
  - (1991년) 국내 증권사의 독자적 해외 진출을 허용, 사무소에서 지점 및 현지법인으로 확대<sup>7)</sup>
  - (1995년) 증권사별 연간 해외점포 설치 한도가 폐지되는 등 증권사의 해외 영업지점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해외 진출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기 시작<sup>8)</sup>
  - (1997년)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 위축<sup>9)</sup>

4) 최순영, 2016, 『국내 증권사 해외진출 특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』,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-04  
 5) 대우증권, 대신증권, 쌍용증권(현 신한투자증권)  
 6) 해외사무소는 국내 투자자와 기업에게 해외 금융시장 정보 제공, 해외증권 발행 중개 역할을 주로 함  
 7) 1991~1994년 신규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 13개  
 8) 1995~1997년 신규 해외 지점 및 현지법인 20개  
 9) 2001~2006년 신규 해외점포 9개, 폐쇄 해외점포 7개

- 2000년대: 대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형 증권사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시작
  - (2001년) 중국의 WTO 가입으로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, 베트남, 태국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여러 신흥국으로 해외 진출
  - (2007년)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 중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 시작<sup>10)</sup>
- 2010년대: 해외진출 재정비
  - (2011년)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해외진출 위축
  - 해외점포 수: 2010년 93개 → 2017년 56개(37개 감소)
  - 2010년 54개였던 현지법인이 2017년 42개로 12개 감소한 반면 사무소의 경우 37개에서 14개로 23개 감소하며 해외점포 감소의 대부분은 사무소가 차지함
- 2010년대 후반: 대형증권사 중심의 현지법인 확대 및 내실 강화
  - 대형증권사 위주로 현지법인 인수 등 해외점포 수 확대
  - 2017년 이후 영업규모 확대, 수익원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대형증권사 위주 해외진출 증가
  - 2017년 이후 사무소의 개수는 13개로 유지되는 반면, 해외 현지법인은 42개에서 2023년 53개로 11개 증가하며 2017년 이후 해외점포는 현지법인 위주로 증가함

〈그림 2〉 국내증권사 해외점포 현황



자료: 금융감독원

□ 최근 국내 증권사의 해외 진출 현황<sup>11)</sup>

- 2022년 해외진출 현황
  - 14개 증권회사에서 72개 해외점포(60개 현지법인, 12개 사무소) 운영
  - 진출 국가: 아시아(78%), 미국(15%), 기타(7%)
  - 주요국 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2021년 대비 56.9% 감소

10) 2007~2011년 신규 해외점포 67개, 폐쇄 해외점포 2개

11) 금융감독원, 2023, 2022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

#### — 해외 현지법인 재무현황 변화

- 총자산: (2017년) 328.6억 달러 → (2022년) 277.5억 달러
- 총부채: (2017년) 302.6억 달러 → (2022년) 202.0억 달러
- 자기자본: (2017년) 26.0억 달러 → (2022년) 75.5억 달러
- 2017년 대비 총자산이 51.1억 달러 감소했지만, 총부채가 감소하고 자기자본이 증가하며 부채비율(1,163% → 268%)이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됨
- 일부 현지법인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Repo 거래를 축소함에 따라 자산·부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

#### — 진출 지역 변화

- 최근 5년간 중국, 홍콩 점포 수 감소(25개 → 20개)
- 신남방 관련국 해외점포 비중: 2018년 33.9% → 2022년 43.5%
-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 진출 확대

#### — 투자전략 변화

- 중개, IB업무 확대 및 PBS(Prime Brokerage Service)사업 등 수익원 다양화
- 과거 금융중심지 위주로 이루어졌던 해외진출에서 벗어나 금융시장의 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위주의 투자 증가
-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복수업종으로 현지 진출하며 금융 시너지 확보<sup>12)</sup>

#### — 2022년 해외 현지법인 총자산 및 당기순이익 현황<sup>13)</sup>

- 국내 증권사의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은 1,082억 원이며 해외법인 당기순이익 비중은 3.3%
- 국내 증권사의 해외법인 총자산은 529.9조 원이며 해외법인 총자산 비중은 6.2%

### □ 증권사별 해외법인 당기순이익 비중

#### — 금융투자회사 글로벌 당기순이익 비중 변화

- 2022년 해외진출 증권사의 40%가 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의 이유로 당기순손실 기록
- 특히, 홍콩에 위치한 해외 현지법인 손익이 크게 감소하며 2022년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(2021년 1억2,640만 달러 → 2022년 1,060만 달러)
- 중국 등 6개국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영업제한, 판관비 증가로 인한 적자 누적과 주요국의 증시 부진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수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<sup>14)</sup>
- 58개 해외 현지법인 중 28사 이익실현(1,880억 원), 30사 손실시현(797억 원)<sup>15)</sup>

12) 복수업종 진출 예시: 신한 금융지주(베트남): 은행 + 생명보험 + 증권

13) 각 사 사업보고서에 제시된 해외 현지법인 당기순이익, 총자산(결산월이 달라 잠정치를 사용하거나, 증권사별 별도 기준, 환율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 상의 통계치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)

14) 금융감독원, 2023, 2022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

15) 사업보고서 상 서로 다른 해외법인의 실적을 함께 보고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해외법인 수보다 적음

〈표 1〉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 당기순이익 비중

(단위: %)

회사명	2018	2019	2020	2021	2022
KB증권	3.6	2.2	2.7	1.9	6.5
NH투자증권	4.3	7.4	9.0	5.3	N/A
SK증권	N/A	N/A	N/A	6.1	N/A
다올(KTB)투자증권	6.4	3.8	6.2	7.4	N/A
대신증권	.	.	.	0.0	0.2
리딩투자증권	0.0	N/A	N/A	N/A	N/A
미래에셋증권	19.2	20.4	20.8	17.7	13.8
삼성증권	1.0	0.8	1.0	0.2	0.5
신한투자증권	2.3	3.4	N/A	2.9	1.5
유안타증권	0.0	.	0.5	N/A	0.2
키움증권	0.8	0.6	0.0	0.6	N/A
하나증권	N/A	N/A	N/A	0.0	7.8
한국투자증권	0.7	1.5	1.7	2.4	1.1
한화투자증권	.	N/A	N/A	0.2	1.5
전체	4.7	5.6	5.7	4.3	3.3

주 : 1) 당기순이익 비중: 해외현지법인 연결당기순이익/지배회사 연결당기순이익  
 2) 총자산, 당기순이익 비중에서 사무소와 상주직원 없이 현지 법령상 설립된 SPC 등은 제외한 현지법인 대상  
 3) 해외현지법인 혹은 지배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 'N/A'로 표기, 당해년도 값이 없는 경우 '.'으로 표기  
 자료: 각 증권사 사업보고서

□ 글로벌 투자 경쟁력 확보

— 글로벌 투자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 여력을 확보해야 함

-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 해외 수익 비중이 낮게는 25%, 높게는 78%에 달하는 반면,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 시작된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해외진출 현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비중은 3%에 불과
- 일부 증권사에서 WM, IB, S&T 등 수익원을 다양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의 41%는 위탁수수료(Brokerage)에서 발생<sup>16)</sup>
- 글로벌 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해외진출이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진출의 성공 여부는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키우며 내실을 강화해야 함<sup>17)</sup>

16) 2021년 기준

17) 최순영, 2016, 『국내 증권사 해외진출 특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』,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-04

— 해외진출 현지법인의 수익구조 변화의 필요성

-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권사의 사업구조상 국내 주식시장의 주기적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점포만의 독자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<sup>18)</sup>
- 국내 증권사 수익 중 위탁수수료(Brokerage) 비중이 높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 IB와 AM, 트레이딩 등 수익모델을 차별화하고 강점을 강화하여 위탁매매 이외의 수익구조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
- 증권사 IB 투자와 수익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에만 집중된 현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

— 글로벌 IB 사례 참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<sup>19)</sup>

- 글로벌 IB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증권사와 다른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설정하고 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함
- 핀테크사 M&A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
- IPO 시장 변화<sup>20)</sup>에 맞춰 스타트업과 전력적 제휴를 확대하고 IPO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<sup>21)</sup>

연구원 김민

18) 최순영, 2016, 『국내 증권사 해외진출 특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』,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 16-04

19) 이효섭, 2023, 『종투자 10년 평가 및 한국형 IB의 발전전략』,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-14

20) 2018년 PEF 미집행약정 2.1조 달러로 사모펀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IPO 금액은 1,900억 달러로 둔화되었으며 IB를 배제한 직상장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소간 IPO 경쟁이 활발해짐

21) 이효섭, 2019, 『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국 금융투자업계의 과제』,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-12